

장애와 복지 관점에서의 노인 연령기준 A Disability and Welfare Perspective on the Current Chronological Definition for Old Age

김 용 섭*
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
Yong Seob Kim
Chosun University

I. 장애인인구의 증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장애인구의 고령화 현상은 더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편이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 현안분석과 정책과제 2015’라는 현안보고서에 ‘장애인구의 고령화: 실태 및 시사점’이라는 연구결과가 실렸다. 여기에 의하면,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 증가 비율과 비교했을 때 65세 이상 장애노인의 증가 비율은 거의 2-3배 정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 전체인구에서 5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도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비율이 2000년 39.1%에서 2005년 62.3%, 2008년 68.1%, 2011

년 71.1%로 확연하게 늘어나고 있다(황주희, 2016).

역시 동 연구원에서 발간한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김성희 등, 2015),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는 2013년 12월 기준으로 약 273만 명으로 추정되며 또 장애 출현율은 2014년 5.59%로 인구 10,000명 중 559명이 장애인에 해당되는 셈이다. 장애발생의 원인은 사고 혹은 질환 등 후천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비율이 88.9%이었다. 조사대상 장애인의 77.2%가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장애인 1인당 평균 1.8개의 만성질환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한 만성질환은 고혈압(41.1%), 골관절염(23.2%), 당뇨병(19.6%), 요통(1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연령별로는 전체 장애인구의 74%가 50세

* 교신저자, 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 김용섭 교수 (e-mail: yskim11@chosun.ac.kr)

이상의 중고령 장애인인데, 이들 중에서 만 65세 이상이 43.3%이고 50-64세가 30.7%이었다. 이미 우리나라 장애인 10명 중 7명 이상이 중고령 장애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10년에서 15년 정도 지나면 대다수가 장애인노인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곧 장애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2000년 30.3%, 2005년 32.5%, 2008년 36.1%, 2011년 38.8%, 2014년 43.3%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장애유형별 출현율을 연령별로 보면,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의 경우 연령 증가와 함께 출현율도 점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발달장애인인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는 어린 시절부터 출현율이 높은 편인 반면, 다른 유형의 경우 50세 이후에 출현한 비율이 현저히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범위를 매우 협소하게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국제적 기준(UN, WHO)인 장애 출현율 10%를 적용할 경우 장애 상태로 지내는 노인들의 수는 대폭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는 장애인을 총 15종류의 장애유형(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간장장애인, 안면장애인, 장루·요루장애인, 뇌전증장애인)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등록 및 장애등급심사제도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32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사무소에서는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받아 신청자에게 교부하고, 신청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사무소에 제출하여 장애인등록을 한다. 신규등록이든지 장애등급 재판정 대상자이든지 2011년 4월 1일부터는 모두 장애인등급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동법 제32조의3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등록한 장애인에게 복지서비스에 관한 상담 및 정보 제공, 복지서비스 신청의 대행, 장애인 개인별로 필요한 욕구의 조사 및 복지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 지원, 장애인과 복지서비스의 제공 기관·법인·단체·시설과의 연계, 복지서비스 등 복지자원의 발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그 밖에 복지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근래 1980년대 이후에 진행된 장애와 노화에 관련된 연구는 두 가지 영역, 즉 ‘고령화된 장애인(aging with disability)’과 ‘노화에 따른 장애인(disability with aging)’을 중심으로 구분될 수 있다. 고령화된 장애인 또는 장애인구 고령화는 노인이 되기 전 선천성 혹은 후천성 장애로 인하여 장애인으로 살아가던 자가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 그들이 장애를 지니게 된 원인이나 장애 유형은 다양한데, 예를 들면,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등 선천성 장애와 사고 및 질환으로 인한 척수손상 등 지체장애를 비롯한 모든 유형의 후천성 장애이다. 또 그들은 장애발생 이후 경과한 기간이 비교적 길거나 장애로 인한 신체의 기능적 제한을 일찍부터 경험했던 탓에 장애 정체성도 비교적 강한 편이다. 그와 달리 노화에 따른 장애인 또는 노화기인성 장애

는 노화로 인하여 또는 노인성 질병과 더불어 장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염이나 고혈압, 당뇨, 중풍, 뇌혈관질환, 치매 등 각종 노인성 만성질환, 또는 노년기에 발생한 사고 및 질환으로 인한 후천성 장애 등 고령화된 장애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좁게 노화 혹은 노년기에 조금 더 초점을 둔 원인과 유형을 강조한다. 그들은 장애발생 이후 경과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탓에 장애 정체성도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다(양희택, 2012; 황주희, 2016).

II. 노인의 연령기준과 장애

우리나라 장애인노인에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노화에 따른 장애인을 중심으로 수행된 것들이다. 곧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노인의 생물학적 법적 연령인 65세를 기준으로 한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렇지만 고령화된 장애인은 노화에 따른 장애인이 지니고 있지 않은 다양한 특성들을 갖고 있다. 오랫동안 장애인으로 살아온 고령화된 장애인들의 경우 비장애인과 달리 조기노화(premature aging)를 경험하는데, 보통 15~20년 정도 빨리 노화로 인한 신체적 변화가 나타난다. 또 그들은 원래 지니고 있던 장애에다가 조기노화에 따른 이차적 장애(secondary condition)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황주희, 2016).

이런 맥락에서 노인의 연령기준인 65세를 비장애인처럼 적용하는 것은 그들에게 매우 차별적일 수 있다. 예를 들면, 보행이 어려운 뇌성마비 장애인은 골밀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골절 혹은 통증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노화가 비장애인에 비해서 훨씬 더 젊은 나이에 시작된다. 또 발달장애인에게 나타나는 노화는 비장애인 또는 다른 유형의 장애인에 비해서 그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른 편이다.

장애인의 입장에서 보면, 비장애인보다 노화의 속도가 더 빠르고 또 노화로 인한 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다(Sheets, 2005).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에게는 노인의 연령기준을 오히려 낮추어주어야 한다. 노인의 연령기준을 현재의 65세 또는 흑시라도 그 이상의 연령으로 조정하는 것은 장애인의 삶의 질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 장애인노인의 기준은 장애의 유형, 정도 및 조기노화, 이차적 장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5세가 아니라 60세나 50세 등으로 더 낮게 설정해주어야 장애인노인의 욕구에 적절하게 대처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물론 노화에 따른 장애인의 경우 노년기를 전후해서 장애를 갖게 된 점을 고려하여 노인의 연령기준을 현행으로 유지하거나 상향 조정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단지 그 경우에도 장애와 노화의 특수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복지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전제조건이 따라야 한다.

참고문헌

- 김성희 등 (2015).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2014-73).
- 양희택 (2012). 장애를 가진 노인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주최 2012년

- 제4차 장애인정책토론회 (2012. 11. 20. 서울: 한국장애인개발원) 자료집, pp. 1-24.
- 황주희 (2016). 장애 인구의 고령화: 실태 및 시사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현안보고서 (2015-02), **보건복지 현안분석과 정책과제 2015**, pp. 216-223.
- Sheets, D. (2005). Aging with disabilities: Ageism and more. *Generations*, 29(3), 37-41.
- 원고접수일: 2016. 09. 19.
수정원고접수일: 2016. 10. 06.
원고게재승인일: 2016. 10. 27.